

## 지식 수집가의 터키 읽기\*

- 조지 샌디스의 『1610년에 시작된 여행 이야기』 -

김 윤 경

(대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1.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기념비적 저작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1978)이 서양이 동양을 타자화해온 역사를 비판하고 1980-90년대에 탈식민주의 담론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이후로 많은 영문학자들은 영국과 타자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전이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거나 그간 주목받지 못했었던 텍스트가 새로 점검되기도 했다. 영국의 팽창이 가시화된 18세기나 제국주의적인 면모가 더욱 발전된 19세기에 생산된 텍스트의 경우, 이 시기의 영국인들이 자국 외부의 세계와 실제로 활발하게 접촉할 수 있었던 만큼 여러 작가,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수행되었다. 이

---

\* 본 연구는 2011년도 대구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에 비해 16-7세기 영문학 연구에서는 영국과 타자의 조우를 추적하는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각종 사료에 접근하기 쉽고 언어장벽이 낮은 북남미 지역에 관계된 문학 작품을 우선적으로 점검했었고, 현재도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대륙과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은 영문학계와 미문학계 양쪽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여 년 동안에는 근대 전기 영문학 연구도 영국, 영국문화와 타자라는 주제를 더욱 폭넓게 고찰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꾸준하게 확대해왔고, 인도나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영국인들이 인종적, 종교적 타자와 맺었던 넓은 스펙트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조츠나 싱(Jyotsna G. Singh)이 근대 전기 영문학 작품에 나타난 영국과 영국 밖의 세계를 연구한 편서를 『글로벌 르네상스 입문: 팽창기 영국의 문학과 문화』(*A Companion to the Global Renaissance: English Literature and Culture in the Era of Expansion*, 2009)라고 이름 붙였다는 사실은 학자들이 이 시기의 영문학에서도 다양한 조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조지 샌디스(George Sandys)의 『1610년에 시작된 여행 이야기』(*A Relation of a Journey Begun An. Dom. 1610*, 이하 『여행 이야기』)는 바로 근대 전기 영문학에서 영국인이 중동지역에 위치한 문화적, 종교적 타자를 관찰하고 기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샌디스에 대해 존 드라이든(John Dryden)은 “총명하고 학식 깊은 샌디스, 지난 시대의 최고의 작시자”(the ingenious and learned Sandys, the best versifier of the former age)라고 칭찬한 바 있고, 많은 영문학자에게 샌디스는 오비드의 『변신』의 번역자로 기억되고 있다.<sup>1)</sup> 샌디스가 주로 문학작품의 유려한 번역을 통해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당대

1) “Preface to Fables of Ancient and Modern,” 552. Keith Walker의 Oxford판에서 인용하였다.

사람들에게 『여행 이야기』는 번역만큼이나 널리 알려졌던 저작이다. 샌디스의 시편 번역집에 실린 그의 지인들의 헌정시 중에서 시인 헨리 킹(Henry King)은 샌디스가 시편의 성경세계를 직접 다녀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후대의 작가들도 샌디스의 여행기를 종종 언급하고 있다.<sup>2)</sup> 17세기 동안 총 9판이 출판되었고 2개 국어(1653년 네델란드어 번역, 1669년 독일어 번역)로 번역될 만큼 명성을 얻었던 샌디스의 여행기는 (McJannet “Purchas,” 227), 에드워드 테리(Edward Terry)나 토머스 코리앗(Thomas Coryat)의 여행기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끈 작품은 아니었으나 유려한 문체와 성실한 기술, 정보의 방대함으로 인해 근대 전기 여행기의 모델이 될 만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다.<sup>3)</sup>

또한 1610년에서 1612년에 걸친 샌디스의 중동 지역 여행을 그린 『여행 이야기』는 이 시기에 영국 문화와 문학에 더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던 오스만튀르크의 모습을 소상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샌디스는 그의 여행기에서 터키, 이집트, 성지(Holy Land), 시칠리아에 대해 기술했는데, 이 네 지역 중 터키는 영국인들에게 익숙한 동시에 몹시 생소한 종교적, 문화적 타자였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상 중 하나였다. 본 논문은 샌디스의 여행기 중 제 1권인 터키편을 분석하며 샌디스가 당대 여행기의 전형적인 형식을 이용하면서도 고전의 번역과 분석적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

2)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예술뿐 아니라 그것들의 근원, 복된 동방을 알고 있습니다”(Next you have knowne (besides all Arts) their spring, / The happy East, “To My Very Much Honoured Friend Mr. George Sandys, Upon his Paraphrase on the Poetical Parts of the Bible,” 10-11).

3) 그 외에 대표적인 레반트 지역의 여행기는 윌리엄 리스고(William Lithgow)의 『긴 여행과 신기한 모험에 관한 이야기』(*Total discourse of the Rare Adventures*, 1632), 헨리 블라운트(Henry Blount)의 『레반트 지역으로의 항해』(*A Voyage to into the Levant*, 1636) 등이 있다. 두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Daniel J. Vitkus의 “Trafficking with the Turk”를 참고하라.

러내었고, 그리고 이러한 개성이 그가 오스만튀르크에 대해 취했던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일 것이다.

## 2.

샌디스의 『여행 이야기』가 근대전기의 여행기로서 어떤 독특성과 전형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 샌디스가 터키라는 지역을 어떤 환경에서 접근하게 되었을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시기의 문학적 관습과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대해 잠시 짚고 가야 할 것 같다. 여행기 장르의 일반적인 속성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샌디스의 여행기가 놓인 구체적 맥락이라 할 수 있을 17세기 전후의 여행과 여행기들의 보다 상세한 특성을 따져보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작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여러 학자가 지적하듯이 근대전기의 여행기는 이전, 이후 시대의 여행기와 사뭇 다른 환경에서 생성되었고 소비의 목적과 소비계층도 달랐다. 신세계로의 진출과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 중세 시대에 비해 근대 전기에는 여행의 범위와 기회가 대폭 늘어났으나, 그 이후의 시대에서와는 달리 17세기 영국은 자신과 외부 세계 사이의 역학관계에서 아직 확실한 주도권을 지니지 못했었다. 중세시대의 여행이 대개는 유럽 내에서 돌아다니거나 가장 멀리 이동한다 해도 성지 순례 정도에 그쳤던 데에 반해, 근대 전기에는 여행의 범위가 미대륙, 인도, 아시아 일부까지 대폭 확장되었다.<sup>4)</sup> 그리고 근대 전기 영국은 스페인처럼 신대륙의 큰 식민지를 세우지도 못했고 프랑스처럼 강력한 절대주의 국가도 아니었던 바, 영국 대사나 귀족, 상인 계층들이 유럽 밖의 대제국 혹은 신세계를 방문할 때

4) 중세 최고의 인기작이라 불리는 『맨드빌의 여행』(*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ca. 1371)에서 인도나 중국 여행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허구인 것으로 추정되고, 13세기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여행하기도 했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에 인종적, 종교적 타자에 대해 일방적인 우월감만을 느끼기 힘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기의 영국인들의 태도에서 후대에 오리엔탈리즘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당시 주요한 여행객이었던 식민과 상업에 관심이 있는 계층에게 여행은 지극히 실용적인 목표를 지니고 수행하는 활동이었고(Parker 7-10), 이 점에서 근대 전기의 여행은 18세기 이후에 교양과 여행,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 여행했던 젠트리계층의 대여행(Grand Tour)와 성격을 달리 했다.

근대 전기의 여행의 성격과 여행 지역과의 관계가 이전, 이후의 시대와 달랐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생산된 여행기의 성격과 목적도 다른 시대의 여행기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보다 여행의 규모도 여행자의 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여행기도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지적 호기심 외에도 식민과 상업 등의 목적으로 여행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어떤 곳을 방문해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충고를 제시하는 프렌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여행에 관하여』(Of Travel)에서 알 수 있듯이(374-75) 여행은 식자층에게는 낯선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을 교육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이 시기의 여행기는 실용적인 정보의 수집과 축적이라는 목적으로 집필된 경우가

5) 근대 전기 영국은 서구의 식민지 경쟁에서 후발 주자였고, 여행기의 출판도 16세기 중반에는 유럽 본토 국가들의 여행기의 번역으로 시작하였다. 리처드 에덴(Richard Eden)의 『신세계, 즉 서인도에서의 세월』(*The Decades of the New World, or West India*, 1555)도 번역서이며, 리처드 해클루트(Richard Hakluyt)의 유명한 선집인 『영국의 주요 항해』(*Principal Navigations, Voyages, Traffics and Discoveries of the English Nation*, 1589)에도 번역이 차지하는 분량이 적지 않다. 신대륙으로 접근이 더 활발해진 이후에는 여행기 내지 신세계나 낯선 지역에 대한 보고가 자주 출판되었다. 월터 롤리(Walter Raleigh) 경의 『광대하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운 가이아나 발견』(*The Discovery of the Large, Rich, and Beautiful Guiana*, 1596)이나 토머스 코리얏(Thomas Coryat)의 『코리얏의 조잡한 이야기』(*Coryat's Crudities*, 1611), 해클루트의 선집을 증보 편집한 새뮤얼 펄차스(Samuel Purchas)의 『펄차스의 순례』(*Purchas His Pilgrims*, 1625), 에드워드 테리(Edward Terry)의 『동인도로의 항해』(*A Voyage to East-India*, 1655)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적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의 기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침도 존재했다(Hulme and Youngs, 5). 윌리엄 셔먼(William H. Sherman)에 의하면 여행기는 “근대 전기의 가장 인기 좋고 융통성 있는 장르로, 다양한 형식으로 독자층을 교육시키고 즐겁게 해주었으며, 국가적 자존심과 상업 투자를 고취시키”는(20)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생산, 소비되었다.

다른 한편 여행의 범위도 확대되고 여행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던 반면, 근대 전기는 아직 여행기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 결과 이 시기의 여행기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직 생성 중에 있는, 매우 유연성이 크고 혼종적인 장르기도 했다. 여행기와 다른 장르 사이의 구분 자체가 대단히 선연하지도 않았다. 1719년에 출판된 다니엘 디포우(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가 당시 독자들에게 허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미미하게나마 있다면, 17세기 초반의 독자들은 토머스 내쉬(Thomas Nashe)의 산문소설(prose fiction)인 『불행한 여행자』(*The Unfortunate Traveller*, 1594)와 윌리엄 리쓰고(William Lithgow)의 『긴 여행과 신기한 모험에 관한 이야기』(*Total Discourse of the Rare Adventures*, 1632, 이하 『19년의 여행 이야기 모음』) 사이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Hulme & Youngs, 6; Vitkus “Orientalism,” 209). 또한 여행이나 여행자를 소재로 한 연극 작품이 상연되는 등 여행의 기록은 여행기라는 장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sup>6)</sup> 16세기 이탈리아나 스페인 작가들이 자주 사용했고 샌디스가 그의 여행기에서 사용하기도 한 형식인 “이야기”(relation)는 여행 일정을 따라 기록된 개인적 경험, 지형과 자연 및 풍속 묘사, 여행 지역에 관한 민속지적 기술이 한 텍스트에 섞여 있는 형식이었는데, 각 작가의 역량과 관심사에 따

6) 여행을 소재로 한 연극 중 현재 남아 있는 작품으로는 *The Travels of the Three English Brothers*(1607), *The Sea Voyage*(1627), *The Antipodes*(1638) 등이 있다.

라 이러한 요소들의 비중과 배합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Sherman 19-20; Rubies 242-45).

17세기의 오스만튀르크 지역 여행과 여행기에서는 터키와 영국 사이의 관계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도 더해져서 이와 같은 근대 전기 여행과 여행기의 특징이 한층 흥미로운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세시대에도 유럽은, 특히 지중해 권역에 인접한 국가들은 중동 지역 세력과 계속 십자군 원정과 통상 등의 형식으로 교류, 충돌해왔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타자에 대한 문화적 혐오감과 종교적 경멸은 서사시, 기사도 로맨스 등 여러 장르에서 형식과 초점을 달리하여 표출되었다(Vitkus “Orientalism,” 208-11). 이러한 환경에서 오스만튀르크 지역은 신대륙처럼 낯설고 신비로운 대상은 아니었으며, 아시아만큼 물리적으로 접근하기도 힘들고 문화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다른 한편 1453년의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에 16-7세기 유럽인들은 오스만튀르크가 그 힘을 부인할 수 없는 강대한 제국이 된 것을 목격하면서 터키 제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비난하는 이전의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유럽은 군사적, 상업적 경쟁상대인 오스만튀르크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이들을 알아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으며, 16세기 후반에 유럽과 터키 사이의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물품과 문화도 더 큰 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왕래하는 사람들의 수와 범위도 늘었다.

영국의 경우 레반트 상사(Levant Company)가 1592년에 수립된 후에 이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과 여행기도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터키인이 문화적으로 재현되는 사례도 많아졌고, 터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도 시작되었다. 동양의 폭정을 상징하는 터키의 술탄들은 종종 실명으로도 근대 전기 영국 무대에 종종 등장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인 크리스토퍼 말로우(Christopher Marlowe)의 『탬버린』(*Tamburlaine*, 1587)은 베이야지드(Bayazid) 1세를 등장시키고 있다. 오스만튀르크의 역사는

이전의 문헌에도 일부분 소개된 적이 있지만, 리처드 놀스(Richard Knolles)의 『터키사 개론』(*The General History of the Turks*, 1603)은 터키를 비롯한 동양의 사료도 이용하며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터키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 코란의 영어 번역도 1615년에 이루어졌다(McJannet *Sultan*, 120-40).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를 여행한 다양한 계층의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지닌 문화적 편견과 지식을 이용하며 어느 정도 낮익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그다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던 이 지역을 기록해 나갔다. 개신교 국가이자 유럽 북서쪽에 위치한 섬나라라는 영국의 상황도 영국인들의 여행기를 이해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인데, 다른 유럽 국가 국민과 달리 영국인들은 터키 지역만큼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접한 경험이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국은 지리적 위치 상 오스만튀르크에게 침략을 당할 위험이 거의 없을뿐더러, 터키가 가톨릭 국가들에 대한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터키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 면이 있었다(Vitkus “Orientalism,” 211-13; McJannet *Sultan*, 5-6). 말하자면 영국에게 터키는 배척할 이유는 크지 않고 더욱 깊이 알 필요는 있는 흥미로운 타자였던 셈이다.

샌디스의 여행과 여행기는 이런 환경에서 여행을 시도했던 이 시기 영국인들의 여행기와 공유하는 요소도 많지만, 샌디스 개인의 성향이나, 환경, 관심사가 『여행 이야기』에 그 나름의 개성을 부여한 면도 적지 않다.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샌디스의 삶과 작가적 경력에서 이 작품과 연관하여 눈여겨 볼 점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샌디스가 고전에 대해 지녔던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샌디스 당대의 사람들이나 후대가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아무래도 번역가로서 샌디스인데, 그는 잘 알려진 오비디우스의 『변신』의 번역(1621-6) 외에도 시편 번역(1636), 그로티우스의 『그리스도의 수난』(*Christ's Passion: A Tragedy*) 등을 계속 번역하며 자신의 언어적 기량



과 고전에 대한 지식을 뽐낸 바 있다. 유럽의 귀족이나 식자층에게 오스만튀르크가 지배하던 중동지역으로의 여행은 상당 정도 희랍 로마 고전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여행한다는 의미가 적지 않았는데(Games 62), 샌디스의 경우에는 이런 면이 더욱 중요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sup>7)</sup>

샌디스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로 말하자면, 형인 에드윈 샌디스(Sir Edwin Sandys)와 여행하며 샌디스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경로로 여행하면서 터키 주재 영사에게 환대를 받기도 했다(28).<sup>8)</sup> 또 그는 자신이 출판한 모든 작품을 찰스 1세에게 바쳤고 그의 시편 번역에 토머스 캐리(Thomas Carew)를 포함한 여러 명의 왕당파 시인이 축하시를 헌정하는 등, 근본적으로는 찰스 1세의 문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드윈 샌디스는 유럽의 종교적 상황과 관용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고 제임스 1세에게 작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전력이 있었던 데에 반해, 조지 샌디스는 형만큼 정치적 입장을 뚜렷이 한 적이 없었다(Ellison 32-46).<sup>9)</sup> 또한 중동 지역 여행 후에도 1621년에는 북미로 건너가서 버지니아 상사의 일원이 되었던 샌디스의 경력은 그가 그만큼 영국 밖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 
- 7) Jonathan Haynes는 샌디스의 여행기의 가장 앞부분에 삽입된 지도의 지명 등에서 샌디스와 그의 식자층 독자가 공유하고 있는 고전과 성경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고 본다. 희랍 로마 고전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지명이 비교적 소상하며, 동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성경에 등장했던 옛날식 지명이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Haynes, 16.
- 8) 샌디스의 『여행 이야기』에서의 인용은 *Early English Book Online*의 초판본에 의거하고 이하에서는 면수만 괄호 안에 기입하기로 한다.
- 9) 조지 샌디스에게 절대주의적 성향의 정부를 비판했던 포클랜드 작작(Lucius Cary, second Viscount Falkland) 같은 지인들이 있었고, 『여행 이야기』에도 터키 정부와 왕조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샌디스 자신도 건강하고 효율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는 있으나 더 자세한 사실은 추측하기 어렵다.

유럽의 지적 전통이라는 면에서 샌디스를 살펴보면, 당대의 상류계층답게 그는 인문주의적 전통의 수혜를 받아 고전 세계에 대한 깊은 학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남달랐는데, 그의 여행기가 지닌 특성도 어느 정도 이에서 비롯된다. 낸시 비사하(Nancy Bisaha)는 15-6세기 이탈리아와 유럽 인문주의자들이 오스만튀르크에 대해 취한 태도를 논하며 인문주의자들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인문주의자들이 유럽의 대중에 비해서는 오스만튀르크에 대해 한층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고 기독교 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담론의 틀을 벗어났다는 점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이들 역시 그리스 고전 시대의 세련된 문화를 찬양하면서 현재의 터키를 비하하는 측면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다(175-77). 샌디스의 태도가 유럽 대륙의 인문주의자들의 이러한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앞서 논한 영국의 특수성과 다소 변화한 오스만튀르크와의 관계와 그 문화에 대한 상세한 지식으로 인해 샌디스가 보여주는 터키 지역은 좀 더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전 세대의 인문주의자들처럼 샌디스는 오스만튀르크를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문화적 후진성도 지적하고 있지만, 그는 이에 더해 자신의 여행 경험을 통해 오스만튀르크가 지닌 문제를 그 사회 전체의 맥락과 함께 제시하기도 하고 터키의 장점을 솔직하게 기술하기도 한다.

샌디스가 당대의 일반 유럽인들이나 인문주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시야를 보이는 지점의 두 가지 예로 유럽인들이 지위고하, 교양 여부를 막론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소재인 하렘과 이슬람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터키 여성과 술탄의 하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슬람교의 교리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유럽인들의 터키 여행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독자와 여행기 작가들 모두에게 터키를 상징하는 요소로 여겨졌었다(Vitkus “Orientalism,”

223). 반면에 문화적 기대치가 확실했던 만큼 이 이야기들은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선입견을 확인하는 계기로만 활용되기 십상이었고, 대개 체류 기간이 길지 않기에 한 사회를 깊숙하게 관찰할 수 없는 여행객이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수정하기도 어려웠다.

하렘과 이슬람 여성에 대한 유럽인들의 편견이 좀처럼 수정되지 않았던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요인도 있다. 오스만튀르크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과 남성은 공간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남성 여행자들이 여성들의 삶을 자세히 알기는 지난한 일이었다(Games 58-60). 따라서 이들은 터키 여성과 하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문화적 모델과 자료에 의존하면서 기존의 이야기를 답습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높았다.<sup>10)</sup> 그리고 술탄의 애첩이 모여 있는 하렘은 중세시대 이래로 이슬람교 문화권의 방종하고 야만스러운 속성에 대한 상징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고, 터키 여성은 유럽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관음적 시선으로 투사하는 대상으로 기능했었다. 실로 터키와 이슬람 문화권을 다루는 다양한 문화적 재현에서 작가들은 거의 빠짐없이 하렘을 언급하면서 동양의 폭정과 관능을 등치시키고 이를 통해 기독교 문화와 유럽식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해오기도 했다(Vitkus “Trafficking,” 47; Games 60). 이슬람교의 경우, 짧게 체류하는 여행객들로서는 유럽인의 정체성의 기저를 형성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우월감을 포기하기도 어려웠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으며, 이들이 오랜 시간에 거쳐 형성되어온 심리적인 혐오감을 극복하기

10) 18세기에 터키 대사 부인이 되어 터키를 방문했던 여성인 워틀리 몬태규 부인(Lady Wortley Montague)이 이전의 남성 작가들이 쓴 터키 이야기에 오류가 많다고 반박했던 것도 터키 사회의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한다. “이들의 도덕, 양식으로 말하자면 (...) 당신들과 똑같다고 말하겠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서 터키 부인들이 죄를 덜 범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들의 방식을 이제 좀 알게 되니, 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모든 작가의 본받을 만한 분별, 아니 엄청난 바보스러움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네요.” *Travel Knowledge*, 102.

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여행 이야기』에서 샌디스는 하렘과 여성들의 삶을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고, 이슬람교 교리와 종교 문화, 제도 등에 대해서도 여러 차원에서 논하고 있는데, 터키 여성들이 노예와 그리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69) 그가 이 소재들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가 다른 유럽 기독교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샌디스를 다른 여행기 작가들과 비교해 보면 그의 시각과 접근 방식이 지닌 상대적인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98년에 갑작스럽게 터키를 방문하게 되었던 오르간장인 토머스 델람(Thomas Dallam)은 후에 쓴 일지에서 자신이 터키의 화려한 궁전에 대해 느낀 매혹을 매우 전형적인 성적 유혹의 형태로 제시한다. 상대적으로 터키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으나 비천한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터키 궁전 내부를 관찰할 수 있었던 델람은 결국 출판하지는 않았던 그의 일지에서 시종일관 소박한 여행객의 태도를 드러내는 편이다. 그의 하렘 이야기가 얼마만큼 사실과 부합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델람의 이야기는 분명 당대 유럽인들이 이슬람교 문화권의 도덕적 문제로 비난하는 일부다처제와 하렘의 이야기를 십분 이용하고 있다.

델람은 오르간을 무척 좋아했던 술탄이 자신을 붙잡아 두고 싶어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친했던 문지기들이 자신에게 말하기를 술탄이 “두 명의 부인을, 자신의 첩 중에서 주든지, 아니면 도시나 시골에서 가장 훌륭한 처녀를 고르면 그들을 줄 것이라고 했다.”고 말한다(56).<sup>11)</sup> 계속 델람이 터키에 정착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에게 집요하게 정착을 권유했던 문지기는 성적 유혹의 강도를 대폭 높여 심지어 하렘을 볼 수 있는 벽 사이의 틈새로 델람을 데려가는데, 델람은 이 경험을 유럽인

11) 델람은 메메드 1세의 즉위를 기념하는 엘리자베스 1세의 선물인 시계 오르간을 재조립하여 전달하기 위해 터키로 보내어졌다. 델람의 일지는 *Travel Knowledge*의 발췌 부분을 사용하였고 이하에서는 면수만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델람의 여행에 대해서는 Gerald MacLean의 *The Rise of Oriental Travel*를 참조하라.

들이 하렘에 대해 지니고 있던 관음적인 호기심을 심분 발휘하여 묘사하고 있다.

틈을 통해서 나는 폐하의 첩 30명이 공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봤을 때 나는 그들이 젊은 남자들이라고 생각했었으나 (...) 곧 그들이 여자들, 정녕 아리따운 여자들인지 알게 되었다. 머리에 작은 금색 모자를 썼고 모자는 정수리 부분만을 살짝 덮고 있었다. 목에 목걸이를 걸지는 않았지만 가슴에는 진주와 보석으로 된 아름다운 사슬이 달려 있었으며 귀에도 보석이 있었다. 외투는 군인의 겉옷 같았는데 일부는 붉었고 일부는 청색이었다. (...) 어떤 이들은 다리 부분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다리가 잘록해진 곳에는 금가락지가 있었고 발에는 4~5 인치 높이의 벨벳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보고 있자 친절하게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준 문지기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 보는 것을 멈추기가 정말 싫었는데, 그 광경이 기막히게 즐거웠기 때문이다. (57)

옛보는 톰(Peeping Tom)이 된 것처럼 델림은 술탄의 애첩들을 망연자실하여 바라본다. 여러 명의 여성이 남성의 과잉한 욕망을 투사하는 듯이 뛰어 놀고 있고, 이들의 아름다운 육체와 화려한 보석은 금지된 욕망의 매혹과 동양적 관능을, 그리고 이런 욕망의 대상을 독점하고 있는 술탄의 절대적인 권력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낯선 옷차림 때문에 애첩들이 첫눈에는 남성으로 보였다는 것도 이들이 유럽인인 델림에 대해 지닌 이국적이고도 도착적인 매력을 시사하고, 이후에 그가 애첩들의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빠짐없이 집요한 시선으로 길게 묘사하는 것도 유럽인이 하렘을 보는 전형적인 방식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델림이 이들의 모습을 훑린 것처럼 바라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희극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반면에 이러한 유혹이 유럽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경계하게 만드는 면도 있다.

문화적 세련됨이나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댈럼이 하렘 엿보기라는 일화를 통해 터키를 단순하게 타자화하며 자신의 욕망을 투사했던 것과는 달리, 샌디스는 각종 문헌을 통해 터키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기존의 지식과 본인이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를 통해 여성들의 삶과 하렘 이야기에 대해 훨씬 다층적인 보고를 전달하고 있다. 샌디스도 다른 유럽인들처럼 하렘으로 상징되는 터키의 과잉한 관능과 야만스러운 권력 독점을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하렘 이야기는 하렘에 거하는 여성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타자화하거나 술탄의 욕망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리 충족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 샌디스의 하렘 이야기는 술탄의 궁정을 소개하는 맥락에서 등장하고 첩들의 간택, 흑인 내시들의 관리 등 궁정에서 하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논하며 상당 정도 거대한 궁정 시스템의 일부로서 설명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73-4). 또한 선정적인 묘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술탄의 누이들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남성과 결혼을 했을 때 이들도 술탄처럼 성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상대방의 우위에 서있게 된다는 사실도 보여줌으로써(74), 하렘에서 발견되는 양성 사이의 억압적인 관계와 무분별한 성의 향유가 사실 근본적으로는 정치권력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오스만튀르크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았던 샌디스는 여행기에서 민간인 가정을 실제로 방문해서 목격한 일화를 소개하지는 않고 있고, 터키 여성에 대한 기술도 거리에서 보이는 여성들의 모습에 대한 간략한 묘사나 이전 문헌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기술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터키 여성에 대한 샌디스의 설명에서는 그가 터키의 가족과 여성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지니고 터키 여성을 인류학적, 사회적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관찰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샌디스는 터키 여성의 아름다움을 간략히 묘사한 후 의상의 경우 남성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생략하며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터키 여성의 외양을 제시하고 있다(67-8).

그리고 터키의 가족 제도 내의 여성은 일부다처제와 여성의 철저한 종속이라는 문제점과는 별개로 그 나름대로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부인들이 교대를 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남자들은 자기 아내들을 똑같이 대접하고, 식사도 옷도, 자비심도 똑같이 베푼다(이런 좋은 이야기가 이들의 박사들의 혼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인들이 카디에게 불평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부인들은 남편과 따로 밥을 먹고 집안일에도 간섭하지 않는다.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편을 만족시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내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인데, (이상한 일이나) 이들은 크게 질투나 시기하는 일 없이 그렇게 산다 (...) 여자들은 우아한 미인인데, 대개 잘 닦인 상아처럼 건강하고, 맑고 매끄럽다 (...) 밖으로 다닐 때에는 긴 가운을 쓰고 다닌다. (67)

델림을 비롯한 대개의 유럽인들은 일부다처제에서 남성이 누릴 수 있는 성적 쾌락의 최대화만을 상상했던 반면에, 샌디스는 일부다처제를 설명할 때에 그 결혼생활이 의외로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으며, 법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 제도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편들의 의무나 부인들끼리의 관계에도 눈을 돌리고, 유럽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부다처제 내의 여성들의 관계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가족 내의 관계가 이렇게 설명될 뿐 아니라 터키인들이 결혼을 장려하며 이혼도 가능하고, 간통에 대한 엄격한 대처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되며, 결혼식 과정도 상세하게 묘사되는 등(66), 터키의 결혼제도에 대한 샌디스의 설명은 비록 그것이 다분히 이전 문헌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법 충실하고 입체적이다. 문화적 편견이 강한 리쓰고가 이슬람교도들은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젊은 상태로 처녀성이 날마다 회복되는 처녀들을 누리면서 지낸다고 믿는다고(157), 터키인들이 기독교인을 이성

이든 동성이든 범한 후 남쪽 샘에 몸을 씻으면 죄가 사해진 것으로 여긴 다든가(153) 하는 과장을 범하는 것에 비하면,<sup>12)</sup> 샌디스의 서술은 설부른 윤리적 판단이나 어설픈 호기심이 더해지지 않다는 면에서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면을 지녔다. 샌디스의 여행기에서 오스만튀르크인들의 일부다처제는 적어도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결혼제도임이 드러나고, 그 속에 있는 여성들 역시 유럽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환원되기 보다는 한계 내에서나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유럽인들의 여행기에서 작가들이 터키 여성과 하렘 이야기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관습적인 시선과 사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 대한 서술이다. 역사적 현실을 살펴보면 지중해 권역에서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왕왕 발견되었고, 오스만튀르크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이슬람교의 관용 정책으로 인해 특별한 종교적인 억압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교는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문화적, 종교적 타자의 상징이었다. 샌디스도 이슬람교에 대해 서술할 때에 기독교인의 성지를 점령한 적이자 신이 보낸 채찍(God's scourge)로 불렸던 이슬람 세력을 긍정하는 데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로 샌디스는 한 기독교인이 개종을 하는 순간을 그리면서 개종자가 끔찍하고도 저주 받아 마땅한 경멸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기도 하다(A sight full of horror and trouble, to see those desperate wretches that had professed Christ all their life (...) now almost dying to forsake their Redeemer, 56).

중세 이래의 문화적 전통에서 자라온 기독교인이라면 피하기 어려웠던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샌디스는 무함마드를 비천한 출신(of obscure parentage; being disdained by the better sort for the baseness of his birth,

12) 『19년의 여행 이야기 모음』에서의 인용은 *Early English Book Online*의 1632년판에서 가져왔고 이후로는 쪽수만 괄호 안에 표기하기로 한다.



52)의 사기꾼이자 세속적 욕망이 넘치는 자로 묘사하며 그의 신성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무함마드가 그의 “저주받은 교리”(damnable doctrine)를 “종교 몇 개를 뒤섞은 것”(a hodgepodge of sundry religions)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53). 샌디스는 무함마드의 일생에 대한 일화를 세세히 따지면서 소개하며 개연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등, 무함마드 개인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존경도 표시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이슬람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무함마드에 대해 샌디스가 내리는 평가는 여타 유럽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렇다고 이슬람교에 대한 샌디스의 설명이 비난 일색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현실의 이슬람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샌디스는 상당한 양을 할애하여 이슬람교의 여러 면을 두루 다루고 있으며 분석도 다각화하고 있다.

방문 지역 묘사, 터키 역사 고찰 후에 오스만튀르크와 터키인 전반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에서 샌디스는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을 당대 영국인들에게 가장 관심사가 되었을 터키 정치와 군대에 대한 보고 및 분석 바로 뒤에 배치해 놓았다. 무함마드와 이슬람교, 사제 조직(“Mahomet,” “The Mahometan Religion,” “Of the Turkish Priesthood”) 등으로 논의를 세분해 놓았고 분량도 충분히 할애하고 있어서 이슬람교 자체가 그만큼 당대 유럽 기독교인 독자들에게 관심도와 중요성이 높은 이슈였음을 방증하고 있다.<sup>13)</sup> 샌디스는 일방적인 비난을 가급적 억제하며, 이슬람교, 이슬람교 사제들의 조직과 권리, 예배 형식, 단식 같은 종교 행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칭과 기능을 모두 원어로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고, 비록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수피교의 테르비샤 댄스까지도 소개하고 있다(55). 적어도 샌디스는 이슬람교의 구체적인 사항을 매

13) 샌디스는 이슬람교에 대한 논의에 2절판 9쪽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오스만튀르크의 역사, 정치 체제, 군대에 관한 논의와 거의 동일한 분량이다. 리쓰고는 4절판으로 9쪽 정도를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파인즈 모리슨(Fynes Moryson)은 터키여행에서 이슬람교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 다양한 차원에서 알려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독자들은 이슬람교가 고도화된 제도와 관습을 지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샌디스는 이슬람교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떨쳐버리지 않았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믿고는 있지만, 이슬람교를 하나의 종교로서 대접하면서 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펼치고 있으며 기독교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슬람교를 폄하하는 시도는 가급적 피하고 있다. 일례로 코란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샌디스는 코란을 종교 경전으로 존경하지는 않으나 하나의 문헌으로 접근하면서 언어적 형식(운율 등), 구성, 경전의 변천 과정을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이슬람교 교인이 코란을 대하는 태도 역시 기독교인과 비교하며 서술하면서 상대화시킨다(53-54). 이슬람교 교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기독교나 다른 종교, 철학과 비교하면서 기원을 따지고 있고(59), 이슬람교 세력의 성공 요인을 분석할 때에도 기독교 국가 내에서 이단들이 많아서 분열되어 싸웠던 까닭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론적으로 이슬람교를 논박하는 태도가 비교적 중립적일 뿐 아니라, 실제로 콘스탄티노플의 고위 종교 지도자를 방문한 일화를 이야기할 때에도 샌디스는 그를 인격적으로 장, 단점이 모두 있는 종교 지도자로 그리고 있다(62).

교리나 제도를 치밀하게 논하는 샌디스의 접근방식이 다른 유럽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더 학술적이고 신중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밀어낸 상징이 되어 버린 성 소피아 성당(Hagia Sophia)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샌디스가 견지하고 있는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태도가 잘 드러난다. 1453년에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점령 후에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된 성 소피아 성당은 유럽인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명소인 동시에 가슴 아픈 패배를 확인하는 곳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여행기에서 내내 개신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

리쓰고의 경우 샌디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터키를 방문했는데, 리쓰고는 그의 『19년의 여행 이야기 모음』에서 모스크가 된 소피아 성당의 변모에 대해 한탄을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터키 어디에서든) 기독교인이 예니체리의 인도 없이 모스크나 교회에 들어갈 수 없기에 나도 영광스럽고 위대한 성소피아 성당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해야 했다. 한 때는 온 유럽의 아름다움이자 장식이었으나 이제는 위대한 터키인 황제가 매주 금요일, 그들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이다 … 두 번째 순례를 갔을 때 나는 세상을 향해 실로 이렇게 말했었다.

분칠한 창부, 끔찍한 죄를 가린 가면,

밝은 아름답고 달콤하나 안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

외관은 실로 보기에 아름다우나 그 속은 (…) 세계에서 가장 더럽고 일그러진 건물이구나. (138-39)

리쓰고는 한 때는 기독교의 영화를 상징하던 성 소피아 성당에 기독교인이 들어갈 때에 터키인의 허락을 받아 들어가야 한다는 아이러니컬한 사실부터 개탄하면서 터키인에 의한 점령을 환기시킨다.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도들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지적하며 터키 점령 이전과 이후를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다. 운문으로 서술된 구절에 나오는 “분칠한 창부”나 아름다운 외관을 배신하는 속이 부패한 건물의 묘사는 “바빌론의 창녀”나 “회칠한 무덤” 같은 성경 구절을 상기시킨다. 당대 개신교인들이 이 구절들을 구교의 부패를 비판할 때 자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리쓰고가 이슬람교에 대해 매우 경직된 개신교인의 태도를 취하며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한 혐오감만을 나타내며 종교적 이유로 실제로 목격할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편협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샌디스가 성 소피아 성당을 묘사하는 방식은 리쓰고와 지극히 대조적이다. 샌디스는 17세기의 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콘스

탄티노플 묘사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콘스탄티노플의 여러 명소 중에서도 성 소피아 성당을 특히 공들여서 길게 설명하고 있다. 샌디스는 자신의 눈을 충실하게 따라가며 콘스탄티노플의 윤곽선을 장식한 모스크들을 소개한 후 그 한가운데에 위치한 성 소피아 성당을 묘사한다.

도시의 일곱 언덕은 (….) 웅장한 모스크들로 왕관이 씌워져 있고, 이 모스크들은 전부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둥근 지붕이 겹겹으로 쌓여있다 (….) 성 소피아 성당은 한때에 기독교 신전이었는데, 다른 모든 모스크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온 우주를 통틀어 더 뛰어난 것이 없겠다. 긴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이 사원을 묘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내 묘사력이 한스럽기만 하다. 추가 되는 부분은 타원형이며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비율, 재질, 기술 모두 경탄스럽다 (….) 지붕은 조그마하며 모자이크화로 장식되어 있다 (….) 메메드 대제가 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이 사원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이미지들을(장인의 놀라운 솜씨로 만들어져 있고, 수도 무척 많았는데) 훼손시키고는 모스크로 만들어 버렸다. 모든 주요한 모스크에는 공공 백니오스(Bagnios), 병원이 부속되어 있다. (31-2)

한때는 동로마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전체가 이교도의 사원으로 뒤덮인 광경을 보면서도 샌디스는 별다른 비판 없이 모스크의 웅장함과 소재, 외관을 묘사하며 이 도시의 전반적인 인상을 정확히 전달한다. 성 소피아 성당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성당의 복잡한 역사에 대해 개탄하는 대신 자신의 시각적인 인상에 집중하며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성당에 대한 자신의 감동을 충실하게 남겨두려 애쓰고 있다.

종교적 차이에 연연하기 보다는 문화적인 세련됨에 경탄하는 샌디스의 중립적이고도 복합적인 태도는 콘스탄티노플 함락과 성 소피아 성당 내부의 모자이크와 이미지에 관한 서술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개신교도

들이 종교개혁 과정에서 구교 문화에서 만들어진 성상을 파괴하였던 것과는 달리, 샌디스는 예술품으로서 모자이크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이탈리아 쪽의 모자이크 기법과 비교를 시도하기도 하면서 성당의 여러 부분을 건축적 측면에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기술하는 과정에서조차 샌디스는 이슬람교도들이 성당 내의 여러 이미지들을 훼손시켰음을 안타까워한다. 샌디스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도 부활절에 기독교의 다양한 종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171-2), 이러한 반응은 이슬람뿐 아니라 기독교 내의 종교적 차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그의 관용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리쓰고가 수시로 동료 여행객들 중 가톨릭교를 믿는 외국인들을 의심하며 가톨릭교도 “로마식 우상숭배”(Roman Idolatry)로 부르고 있는(150) 것과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문화적 예술적 관심이 샌디스로 하여금 종교적 편협함을 넘어서게 했음을 보여준다.

샌디스가 종교적 이미지들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제단의 훼손과 도시의 점령에 대해 사실만을 건조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이후에 오스만튀르크의 역사를 개괄하는 부분(45)에서도 샌디스는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해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역사적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록하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에 바로 모스크의 사회적 기능을 언급하는 것 역시 샌디스가 오스만튀르크 제국이 성 소피아 성당과 콘스탄티노플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리는 작업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에 이슬람교도들의 자선에 대해 설명할 때에 사원 근처에 위치한 병원과 학교를 소개하고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등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자선을 베푼다는 점을 언급하면서(57), 샌디스는 이슬람교가 건설한 상

태로 현실에 존재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선히 제시하고 있다. 조지 샌디스가 형인 에드윈 샌디스처럼 자유종교주의(latitudinarianism)적 면모가 있었다고(Ellison, 32) 말하기는 힘들다 하도, 적어도 샌디스는 당대의 유럽인들에 비하면 개신교도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이슬람과 기독교를 피아로만 구분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다. 교리로서의 이슬람교에 대한 그의 판단이 확고한 것과는 별개로 그의 여행기에는 그가 여행과 문헌을 통해 얻은 이슬람교의 문화와 제도의 다양한 면모와 장단점은 충실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여행 이야기』의 몇 에피소드를 통해 샌디스가 터키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듯이, 근대전기 여행기 장르의 전통과 관습이라는 면에서 이 작품을 살펴보아도 샌디스의 개성이 나타나는 지점이 있다. 『여행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전 시대의 유럽 대륙의 여행기에서 많이 사용된 이야기(relation) 형식의 유연성과 혼종성을 활용하면서 자신이 여행에서 목격한 바와 과거와 현재의 터키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여러 종류의 지식을 축적하며 다층적인 탐구를 수행한다. 샌디스는 오스만튀르크라는 지역의 풍광과 문화를 고전과 함께 번역하고 다양한 문헌에서 수집한 지식을 종합할 뿐 아니라 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작업 방식은 터키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샌디스의 여유 있는 태도와 함께 『여행 이야기』를 다른 여행기와 구별되는 텍스트로 만들어 주고 있다.

터키편의 상세 구성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여행 일정을 따라서 펠레폰네소스와 에게 해 지역 도시를 하나씩 소개한 후 콘스탄티노플 근방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등 여행기적 요소가 강한 반면, 후반부는 터키 역사 개관으로 시작하여 정치, 종교, 관습과 풍속, 인종 등을 논하는 민족지적 탐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야기(relation) 형식의 전형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된 샌디스의 여행기에서 형식적 측면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는 고전의 빈번한 인용이다. 물론 다른 여행기에서도 고전 문학 작품의 구절을 인용하며 글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샌디스는 눈에 띄 정도로 다른 작가들보다도 더 자주, 더 길게 자신의 여행기 텍스트에 운율을 맞춘 미려한 운문 번역문을 삽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백부분의 주석에 번역된 고전 텍스트의 원문과 출처까지 병기하고 있다.

집필 당시 왕자였던 찰스 1세에게 바치는 헌정사로 시작되는 2절판(Folio)으로 출판되었고 정교하고 세련된 삽화가 다량 수록되었으며, 수시로 고전에 대한 암유(allusion)이 등장하는 등, 『여행 이야기』는 명백히 부유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기이다. 그런 만큼 이 여행기에서 고전의 번역과 인용은 에프테르피 미치(Efterpi Mitsi)나 린다 맥자넷(Linda McJannet)이 주장하듯이, 독자들로 하여금 일견 낯선 터키의 풍경을 문화적 수준이 높은 이들 독자층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 오스만튀르크를 유럽이 포함된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게 만드는 기능도 했다(Mitsi 52-4; McJannet “Pulchas,” 231-32). 그리고 샌디스 자신에게도 고전 번역과 터키 여행은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할 필요도 없는, 한 뿌리를 지닌 작업이었다. 샌디스의 여행기는 작가 자신과 그의 독자들에게 텍스트와 물리적 공간 모두가 이중적으로 축적되고 경험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전 텍스트로부터 인용된 분량이 『여행 이야기』에 다른 여행기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지만 호메로스(Homer), 루카누스(Lucan), 베르길리우스(Virgil), 헤시오도스(Hesiod), 세네카(Seneca) 같은 작가의 작품을 맥락에 맞추어 소환하는 샌디스의 솜씨도 탁월하며, 인용의 선택과 비중도 여행기의 각 부분의 성격에 맞도록 잘 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놀스의 『티키사 개관』을 주로 이용하며 844년의 스키타이족의 이주로 시작된 오스만튀르크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42-6)에서 샌디스는 고전 작품을 인용하는 일 없이 당대인들이 사서의 형식으로 빈번하게 사용하였던 건조한 연대기적인 기술을(Ellison, 56-7)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터키인들의 역사가 고전 희랍로마 세계와 무관하며 그 나름대로 긴 역사를 지닌 오스만튀르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 외의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은연중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또 터키의 화려한 현재가 집적된 장소이자 당대인들도 궁금해 할 여행 명소가 많은 콘스탄티노플을 설명하는 부분 역시 인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대신 샌디스 본인의 자세한 묘사가 주를 이루며 여러 장소에서 본 광경을 재현하는 삽화가 거의 매 페이지마다 삽입되어 있다.

반면에 트로이, 레스보스 등 희랍로마 고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의 여행을 서술할 때에나 그리스인에 대한 민족지적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고전 문학 작품의 인용이 본문의 비중에 필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트로이 지역의 경우 호머의 『일리아스』와 버질의 『아이네이스』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니만큼 고전의 인용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샌디스는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뿐 아니라 16세기의 스칼리게르(J. C. Scaliger) 같은 학자의 글도 인용하면서 트로이 지역을 고전과 함께 읽어 나간다. 트로이 지역 부분에서 샌디스는 인용을 통해 도시의 유래를 소개하기도 하고 자신이 보는 풍경과 분위기를 고전 텍스트의 표현을 이용하여 전달하기도 하며, 고전이 담고 있는 정보를 검증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일레로 테넨도스(Tenendos) 지역에 관한 서술은 『일리아스』에서 이 지역의 신전을 봉헌받은 아폴로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시작되어 『일리아스』에 서술된 아킬레스와 테네스(Tenes) 사이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간다(19). 또한 트로이의 신화적 역사에 대한 설명을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의 주인공인 아이네이스 말을 14행에 걸쳐 인용하며 전달한 직후 샌디스는 『일리아스』와 『아이네이스』를 비교하며 슬쩍 논제를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의 여정의 현실성이라는 고전 해석의 문제로 바꾸기도 한다(20). 샌디스는 소개되고 있는 지역의 동서남북과 절벽, 강, 계곡 같은 중요한 지형 역시 빠지지 않고 언급하고 있기도 한데(North of this promontory is that of Raeteum (...) Twixt these two capes there lies a spacious valley, 21), 이런 지형 묘사는 다시 아킬레스와 스카만데르(Scamander) 강에 대한 전설을 소개하고 이 이야기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강을 비교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강 근처의 풍경에 대한 묘사는 고전 시인인 벨로니우스(Bellonius)가 트로이의 위치를 착각했음이 틀림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며(22), 풍광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지리적 위치에 대한 판단은 고전을 다른 문헌을 참고하면서 상호 검증하는 작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사실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샌디스는 충분히 자신의 관찰력과 감정에 의존하여 여행 경험을 효과적으로, 유려하게 서술할 역량이 있는 작가이다. 그런데 그가 이렇듯 고전 텍스트로 자신의 여행담을 상당한 정도로 대체해버리는 것은 그만큼 샌디스가 고전 텍스트를 재전유하는 인문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입지와 정체성을 내세우고자 하기 때문이자, 독자와 여행자로서 자신을 이어줄 공통의 고리인 고전의 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보자면 『여행 이야기』는 샌디스가 자신 눈앞에 있는 풍경과 함께 고전 텍스트를 동시에, 한 공간에서 읽어 가면서 온축된 여러 시대의 지식을 하나의 지식으로 재구

성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여행기를 읽는 독자들 역시 터키 지역과 고전 텍스트를 이중적으로 여행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셈이고, 샌디스는 고전 텍스트를 모국어로 번역했듯이 오스만튀르크 지역의 풍광을 영국인의 문화적 세계로 번역하고 있다.

샌디스의 고전의 번역과 인용 작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이 시기의 여행기 저자 중 가장 학식이 높은 저자이기도 하지만 여행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가장 많이 억제하는 저자이기도 하다. 통명스러운 말투로 고생과 모험담을 털어놓으며 자신을 영웅화하며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국가적 정체성을 내세우는 리쓰고나 함께 했던 형제가 사망한 개인적 고난까지도 이야기하는 파인즈 모리슨(Fynes Moryson)에 비하면, 샌디스의 여행기에서 샌디스 개인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여정을 따라가는 부분에서조차 만나게 된 사람을 짙막하게 묘사할 때에나 1인칭을 사용할 뿐 본인의 감정을 피력하는 문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많은 경우에 수동형 문장이 쓰이거나 샌디스가 관찰하는 지역, 사물 등이 주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행 이야기』에는 이처럼 자신을 감추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샌디스가 자신의 개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지점 역시 존재한다. 위에서 논한 그의 독특한 고전 인용 방식도 샌디스가 다른 문화를 번역하고 중개하는 능력을 보여주지만,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수집, 분석할 때에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일반화하는 능력도 샌디스의 장점이다. 샌디스는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Hippodrome)에 기단부에 각인된 고대 그리스어 문장을 읽을 수는 없지만 기록해 놓는다고 말하며(36)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함을 드러내면서도 온전한 기록을 증시하는 학술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고거나 혹은 이야기의 매끄러운 서술을 위해 중복된 이야기는 생략하겠다고 하는 문장이 반복되

는 것도 샌디스의 작가로서의 신중한 자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샌디스는 고전 문헌, 근대 전기의 학문적 성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모두 등가의 지식으로 취급하면서 그 총합을 온전히 보여주려는 목표를 지녔다. 다종적인 소재와 정보는 그의 흐름이 매끈한 서술 방식과 일관성 있는 작가적 태도에 의해 수렴되어 그 결과 『여행 이야기』는 문화적, 문학적 백과사전 같은 성격을 지닌 텍스트가 된다.

또한 호고주의(antiquarianism)의 영향을 받아 샌디스가 오스만튀르크 지역의 유물, 식생, 사람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행 이야기』에서 제시된 오스만튀르크의 다양한 면면이 파편적인 경험의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찰스 1세에게 바치는 헌정사에서 샌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위대함과 감각만 좇던 오만하고도 야만스러운 폭군이 세상 중에서도 광대하고 훌륭한 부분을 한탄할 만큼 비통스럽고 속박된 상태로 추락시켰고, 그 지하에서 (이해력이 좋은 관찰자라면 놀라워할 정도로) 세상이 쇠약해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 저는 제가 봤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할 뿐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사람들과 나라들의 예전 상태뿐 아니라 가장 고대적 이야기도 간략히 개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의 나약함과 세속적인 것의 덧없음을 정확히 그려 낼 수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 외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o the Prince”)

이 헌정사에서 샌디스는 자신이 여행했던 오스만튀르크 지역의 풍광뿐 아니라 긴 기간을 다루는 역사적 개괄, 민족지적 탐구도 포함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오스만튀르크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간략히 밝히고 있다. 샌디스는 분명 유럽 인문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오스만튀르크가 고전 희랍 문화유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

의 이런 논조가 여행기 본문의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묘사와 서술과 다소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Vitkus “Trafficking,” 47; McJannet “Pulchas,” 231), 이 부분에서 보다 눈여겨 볼 점은 샌디스가 자신의 여행기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정의했는가라는 것이다. 여행 경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역사적, 문화적 탐구를 함께 수행하면서 샌디스가 도출해내려는 깨달음은 세속적인 권력의 영락이나 인간 본성의 문제 같이 철학적,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사실 여행기 장르가 이국적인 풍광과 문화를 일회적으로 소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지가 오스만튀르크나 이슬람 문화권처럼 이질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대상일 경우 철저히 타자로만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기 십상이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샌디스의 오스만튀르크에 대한 서술은 특정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일차원적인 소개 이상의 것으로, 보편적인 인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행 이야기』에서 이러한 경향은 오스만튀르크의 학문과 예술 전반을 논의하는 부분과 터키의 정치적 역사나 아메드 치하의 오스만튀르크의 정치적 시스템에 대한 서술과 분석에서 잘 드러난다. 오스만튀르크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논의와 분석의 경우 관찰과 분석의 대상이 서구적 학문의 틀로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화가 쉬웠던 면도 있다. 터키인들의 물리학, 천문학의 수준을 평가할 때에 샌디스는 필요와 경험이 이런 학문을 촉발시켰다고 평하고, 수사학과 논리학을 기피하는 오스만튀르크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들이 소박한 연술을 선호하는 것은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72). 오스만튀르크의 학문과 문화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샌디스는 학문을 그 사회의 내적 맥락에서 살피고 고전 철학의 영향을 논하며 오스만튀르크와 유럽의 학문들이 공통점을 지닐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이미 인쇄 혁명이 상당 정도 진행된 유럽의 문자 환경과 대조되는 오스만튀르크의 필사문화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 샌디스는 실제로 문자가 기울어진 상태로,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다는 등 문헌의 외관에 대해 세밀하게 묘사하기도 하지만, 필사 문화가 명맥을 유지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흥미로운 추론도 제시하고 있다. 샌디스에 의하면 오스만튀르크가 “인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지식이 보편화되면 기초가 그릇된 그들의 종교와 정책이 전복될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무지한 복종에 의해 더 잘 보존되기 때문이다”(72). 또 그는 필경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성직자이고 이들이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첨언한다. 샌디스의 통찰은 오스만튀르크의 예에서 이전 시대의 유럽에서도 발견할 수 있던 종교와 필사문화와 지식의 전파, 성직자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억압의 연계 관계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샌디스가 가장 공들여서 분석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을 당대의 오스만튀르크의 정치체제와 군사력에 대한 설명과 평가는 오스만튀르크 역사 개관의 마지막에 간략하게 등장하고(47), 술탄 본인에 대한 논의에도 재등장하고 있다(74-76). 어느 경우에도 샌디스는 당대의 오스만튀르크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전달을 정치체제 일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개하고 있다. 샌디스는 거듭 개개의 사건이나 상황의 선정적인 표면을 그리기보다는 전체를 두루,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행기 전반부에서 터키의 역사를 연대기적 방식을 차용하여 기술하는 부분도 왕들의 계보를 단선적으로 훑어가는 한편, 왕국 내 세력의 내분과 베니스나 나폴리 같은 주변 기독교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44-45). 또 감정적 판단이 실리지 않은 샌디스의 기술을 통해서 연속적인 정복으로 점철된 오스만튀르크의 역사를 이끌고 간 동력이 되었던 이들의 군사적 능력이 은연중에 전달되는 면도 있다.

무엇보다 당대의 술탄을 정점으로 한 오스만튀르크의 정치체제에 대한 샌디스의 설명은 냉정한 관찰, 세밀한 점검과 비판적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대 전기의 여행기가 타국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는 목적도 있었던 만큼 정치체제에 대한 분석이 전개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지는 않으나, 샌디스의 분석은 실용적 목적을 넘어서는 일관성과 통찰력을 지녔다. 놀스의 『터키사개론』에 의지한 부분도 많지만 술탄 아메드에 대한 설명을 자신이 관찰한 바에 따라서 수정하는 등(Elison 56-7), 샌디스는 비굴한 노예들과 폭압적인 군주로 이루어진 거대한 오스만튀르크 제국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한계를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신교도로서의 입장이 극히 분명했던 리쓰고가 오스만튀르크 지역 내의 기독교인들이 노력만 하면 이교도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전적으로 외치는 것(162)과는 대조적으로, 샌디스는 술탄의 궁전과 군대의 장엄함에 대한 감탄을 숨기지 않는다(there is not in the world to be seen a greater spectacle of human glory, and if (so I may speak) of sublimated manhood, 75) 동시에 오스만튀르크 내부의 문제에 천착한다.

예를 들어 샌디스가 술탄들이 자신 치하의 정치세력을 대하는 태도나 친족을 살해하는 관습에 대해 한 이야기를 보자. 샌디스는 술탄이 자신을 보호하도록 만든 세력인 예니체리(Janissaries)를 제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48) 군대 내의 기강도 느슨해졌지만, 자신의 신민을 불신하며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부리면서 불안정한 정치체제를 연장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51-2). 또한 술탄이 왕위 승계시에 부친이나 형제를 살해하는 관행을 언급할 때에도 샌디스의 설명은 친족살해의 잔혹성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고 있다. 샌디스는 술탄 아메드 본인은 마음이 약해서 동생을 살려 두었다는 일화도 전하면서 술탄들의 이런 행위가 야만스러운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술탄들이 궁극적으

로는 정치적 경쟁상대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더욱 간지를 발휘하여 자신의 통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법제화하게(52)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샌디스가 그리는 오스만튀르크의 군주체제는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통치형태요 정치 체제인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문제를 골고루 지적한 다음 샌디스는 터키의 현재를 일정 정도 인정하면서도 이 제국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 이유를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샌디스는 오스만튀르크가 외형상으로는 광대하고 그 자체는 인류 역사에서 일정한 성취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속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제국이라고 결론 내린다.

터키제국은 현재 제일 큰 나라고, 어쩌면 태초 이래 중 가장 큰 나라일 것이다 (…). 그러나 이 폭정을 유지시키는 야만적인 정책은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다. (이 나라는) 머리에 의해 지도 받고, 노예들의 손에 의해 강건해지는데, 노예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영예라고 생각한다. 마치 우리 왕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말이다 (…). 그러나 정녕 바라건대, 이들이 위대함이 지금 정점에 있거니와 곧 끝에 달하리라. 몸이 머리에 비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머리인 술탄은 전쟁에 익숙하지 않아서 무력에는 개인적인 관심이 없고, 군대는 나태와 방만으로 부패했다. (50)

몇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샌디스는 술탄 아메드가 몸집은 비대하고 첩은 많아도 자손의 수는 적은 것과 유사하게 오스만튀르크의 영토 내에는 정복 후에 폐허가 된 곳을 돌보지 않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도 많아서 일견 화려해 보이는 제국이 사실은 내실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Vitkus “Trafficking,” 48; Ellison 63-6). 또한 터키의 정치 공동체는 착

취와 굴욕적인 봉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노예적인 신민은 스스로 문제를 직시할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반면에 술탄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탄 자신은 터키만큼 거대한 제국을 떠받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샌디스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노예적 신민과 무능한 폭군의 이러한 공존이 자기파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이러한 현상이 꼭 터키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넉넉히 언급하고 있다. 그가 묘사하는 오스만튀르크는 부자연스러운 정치체(body politic)로 머리와 몸의 균형을 잃은 기형적 상태에 처해 있으며 바로 이러한 까닭에 외형적으로는 극도로 성장한 이 제국은 자연적 원리에 따라서 쇠락의 길을 걸을 것으로 추론된다.

제임스 엘리슨(James Ellison)처럼 술탄 아메드 치하의 오스만튀르크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샌디스 자신의 군주였던 제임스 1세의 궁전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읽기에는 『여행 이야기』에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1610년 이후로 찰스 1세의 시대에 이르는 시기까지도 샌디스의 정치적, 사회적 궤적은 스튜어트 궁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샌디스의 논의는 당대 영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삽입되었다기보다는 그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근대전기의 정치 이론에서 군주와 폭군의 차이를 고민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제임스 1세조차도 그의 『바실리콘 도론』(*Basilikon Doron*)에서 군주와 국가를 일치시키고 폭군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좋은 왕이 가야할 길을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오스만튀르크의 폭군과 노예에 대한 샌디스의 논의는 정치체제와 군주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이론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여행 이야기』에서 오스만튀르크에 대한 샌디스의 정치적 분석은 문제투성이의 타자의 모습을 통해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보편적 진리를 모색하는 과정에 가깝고, 오스만튀르크의 사례를 통해 샌디스는 올바르게 작



동하는 통치체제에 대한 요건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샌디스의 『여행 이야기』가 17세기 초반 여행기 중에서도 명성을 얻고 널리 읽혔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여행기가 문화적, 역사적 전통과 관습에 대해 아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샌디스는 여행기라는 장르의 관습에서 기대되는 바에 일정 정도 부응하면서도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관심사에 의거해 특색 있는 면모를 더했다. 그는 터키를 포함한 중동 지역 문화에 대한 기존의 문화적, 종교적 선입견을 전적으로 역전시키지는 않았으나, 고전에 대한 지식과 여행 경험과 통찰, 분석을 통해 영국 밖의 세계, 특히 오스만튀르크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오래된 타자에 대해 한층 더 복잡하고 객관적인 상을 창조할 수 있었다. 샌디스의 여행기는 인문주의적 교양을 쌓은 영국인이 타자와의 조우를 담백하게 기록하고 성찰한 텍스트이며, 중동지역에 대한 문학적 백과사전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알던 터키와 터키인들과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사고되어야 마땅할 타자의 흥미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Bacon, Francis(1996), "Of Travel", *Francis Bacon: The Major Works*, Ed. Brian Vick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isaha, Nancy(2004), *Creating East and West: Renaissance Humanists and the Ottoman Turk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 Press.
- Bosworth, Clifford Edmund(2006), *An Intrepid Scot: William Lithgow of Lanark's Travels in the Ottoman Lands, North Africa and Central Europe, 1609-21*, Hants: Ashgate.
- Dryden, John(1987), *John Dryden: The Major Works*, Ed. Keith Walk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son, James(2002), *George Sandys: Travel, Colonialism and Tolerance in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Brewer.
- Games, Alison(2008), *The Web of Empire: English Cosmopolitans in an Age of Expansion 1560-166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dfield, Andrew, ed.(2001), *Amazons, Savages, and Machiavels: Travel & Colonial Writing in English, 1550-1630: An Ant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ynes, Jonathan(1983), "Two Seventeenth Century Perspectives on the Middle East: George Sandys and Sir Henry Blount", *Alif: Journal of Comparative Poetics* 3.
- \_\_\_\_\_ (1986), *George Sandys's Relation of a Journey Begun An. Dom. 1610*, Cranbury: Associated University Press.
- Kamps, Ivo, and Jyotsna G. Singh, ed.(2001), *Travel Knowledge*, New York: Palgrave.
- Lithgow, William(1632), *Totall Discourse of the Rare Adventures, and Painfull Peregrinations of Long Nineteen Yeares Travayles, from Scotland, to the most Famous Kingdomes in Europe, Asia and Affrica*. 1632, *Early English Book Online*. 1 Sep. 2012. <[http://gateway.proquest.com/openurl?ctx\\_ver=Z39.88-2003&res\\_id=xri:eebo&rft\\_id=xri:eebo:image:9042](http://gateway.proquest.com/openurl?ctx_ver=Z39.88-2003&res_id=xri:eebo&rft_id=xri:eebo:image:9042)>
- MacLean, Gerald(2004), *The Rise of Oriental Travel: English Visitors to the Ottoman Empire, 1580-1720*, New York: Palgrave.

- Matar, Nabil(1999), *Turks, Moors, and Englishmen in the Age of Discove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cJannet, Linda(2006), *The Sultan Speaks: Dialogue in English Plays and Histories about the Ottoman Turks*, New York: Palgrave.
- \_\_\_\_\_ (2011), “Purchas His Pruning: Refashioning the Ottomans in Seventeenth-Century Travel Narratives”,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74.2.
- Mitsi, Efterpi(2008), “A Translator’s Voyage: The Greek Landscape in George Sandys’s *Relation of a Journey* (1615)”, *Studies in Travel Writing* 12.1.
- Parker, Kenneth, ed.(1999), *Early Modern Tales of Orient: A Critical Anthology*, London: Routledge.
- Parr, Anthony(1995), Introduction, *Three Renaissance Travel Play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Rubiés, Joan Pau(2002), “Travel Writing and Ethnography”, *The Cambridge Companion to Travel Writing*, Ed. Peter Hulme and Tim You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ys, George(1615), *A Relation of a Journey begun An. Dom. 1610*, *Early English Book Online*, 1 Sep. 2012, <[http://gateway.proquest.com/openurl?ctx\\_ver=Z39.88-2003&res\\_id=xri:eebo&rft\\_id=xri:eebo:image:22574](http://gateway.proquest.com/openurl?ctx_ver=Z39.88-2003&res_id=xri:eebo&rft_id=xri:eebo:image:22574)>
- Vitkus, Daniel J.(1999), “Early Modern Orientalism: Representations of Islam in Sixteenth-and -Seventeenth-Century Europe”, *Western Views of Islam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Perception of Other*, Ed. David R. Blanks and Michael Frassetto, New York: St. Martin’s Press.
- \_\_\_\_\_ (2000), Introduction, *Three Turk Plays: From Early Modern England*, Ed. Daniel J. Vitku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Trafficking with the Turk: English Travelers in the Ottoman Empire during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Travel Knowledge*, Ed. Ivo Kamps and Jyotsna G. Singh, New York: Palgrave.

원고 접수일: 2012년 11월 1일

심사 완료일: 2012년 11월 30일

계재 확정일: 2012년 12월 4일

ABSTRACT

---

## A Knowledge Collector's Reading of Turkey

- George Sandys's Relation of a Journey -

Kim, Younkyung

*A Relation of a Journey begun An. Dom. 1610* by George Sandys shows the flexibility of early modern travelogues and the 17<sup>th</sup> century British literary class's attitude toward Ottoman Turkey. Though Ottoman Turkey, then a powerful empire, emerged as an important trade partner, Sandys's contemporary British people sometimes failed to overcome age-old cultural, religious prejudices against the empire and its people. In his comprehensive travelogue Sandys, on the other hand, appreciates Turkish culture and landscape from his unique humanist point of view, without denying the Ottoman Empire at that time; he himself was not free from those prejudices, but he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humanist tradition and fairly interested in religious tolerance. In order to read the past and present Turkey more in depth within his rather limited frame, Sandys meticulously utilizes the excerpts from classical texts and makes his representation of Turkey multi-layered. While he suppresses his own authorial voice in the text, he enhances his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urkey with detailed analyses and meditation and presents general, universal messages.